

※ 진흥회 동정

신제품경연장 『SIEF 2001』 개최 준비 ‘맑음’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국내 전기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촉진을 위해서 개최하는 『2001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10. 16 - 19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국내외 14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LG산전, 효성, 일진전기공업, LG전선, 대한전선 등의 대기업과 국제전기, 제룡산업, 케이디파워 등 중소기업이 참가하며, 해외업체로는 미국, 프랑스,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독일 등 15개국 140개 업체가 참가하여 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Digital화된 신제품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어 전기기기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전시기간중에 개최되는 부대행사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행사로는 『세계각국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로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를 위해 KOTRA와 공동으로 일본전력회사 및 세계각국의 전력기자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0.17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세

계각국 바이어들이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제조물 책임법(PL)을 '9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전력기자재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PL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중국 PL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밖에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발표회』와 전기산업의 수출증대노력과 기술 개발에 공로가 큰 업체 및 임직원에게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수출업체와의 간담회와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한 관계기관, 단체, 참가업체 임직원들과의 기념리셉션도 개최하여 전기산업 발전의 활성화와 수출증대 및 내수확대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7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은 2002. 11. 4 - 7(4일간)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통상전시팀)

품질경영 우수업체 방문단 파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회원사의 품질향상 도모와 기술정보 습득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9월19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회원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30여명으로 공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국내 품질경영 우수업체의 공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지난 '92년 중전업계의 품질 향상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7.1) 및 업체의 제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신청이 쇄도하였다. 이번 행사의 일정은 9월19일 차단기, 개폐기 제조업체인 (주)비츠로테크 안산공장 견학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전기절연물을 생산하는 성원 전기공업(주) 화성공장, 9월20일 최고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지향하는 삼성전자(주) 수원공장, 충남 당진의 환경친화형 발전소인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후

태안반도로 이동, 방문단 일행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인 9월21일에는 오전에 태안국립관광공원을 둘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대산으로 이동하여 민간발전소인 현대중공업(주)의 대산발전소를 견학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이들 업체의 첨단생산설비 및 품질경영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선진 품질경영기법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배움으로써 자사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 사업의 목적인 회원사 및 기업간 정보교류 및 친목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기술진흥팀)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 선정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 9월 14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제4차 중전기 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동전업사, 제룡산업(주) 등 12개 업체의 휴즈, 변압기 등 6개 품목 14개 제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공인인증시험 면제를 결정하였다.

이번의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면제가 결정된 제품은 ▲경동전업사 컷아웃스위치 ▲(주)에이퍼케이 캡레스형피뢰기 ▲제룡산업(주) 몰드식변압기 ▲대진전기 적철심변압기 ▲삼흥중전기공업(주) 자동구간개폐기 ▲진광이앤씨(주) SF6가스개폐기 2종 ▲(주)엘파워테크 권철심변압기, 적철심변압기 ▲(주)비츠로테크 자동구간개폐기 2종 ▲경보전기

(주) 복합형계전기 ▲LG산전(주) 복합형계전기 ▲(주)여기로테크 부하개폐스위치 2종 ▲현대중공업(주) GIS 2종 등이다.

진흥회에서는 해당업체에 『공인인증시험 면제증』을 교부하였으며, 이 제품들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지 않고 해당업체의 자체시험을 마친 시험성적서로 납품이 가능하여 업체의 생산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면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동 제도의 현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면제대상 제품 확대 등에 대하여도 토론이 있었다. (문의: 기술진흥팀)



對日 PL 벤치마킹 연수단 파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주)PL Korea와 공동으로 일본 선진기업들의 PL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PL 위험에 따른 전사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전업계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9.25 - 29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구주전력, 구주송하전기, 일본전신전화(NTT), 남해전설 등 전력회사·중전업계·공사업계 공장을 방문하여 PL구축 시스템 현황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고 또한 일본기업이 PLP 활동방향과 성과 및 제품 안전 활동교육을 받기 위해 LG산전(주) 등 8개 업체 및 진흥회, PL Korea 등 10개사 14명으로 구성된『중전기기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일벤치마킹 연수단』을 파견하였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조물책임법 제정(2001.1.21)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시공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002.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동 법 시행에 좀더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중전기기 PL 관리자』양성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전적 준비를 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PL 체계를 갖춘 기업이 없고 현장실습을 통한 직접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없어 '95년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많은 준비를 해 온 일본 선진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업체의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문의: 기술진흥팀)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